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동사의 노트테이킹 방안: 영한 순차통역 교실을 중심으로*

최 경 희
(평택대)

1. 들어가는 말

순차통역에 있어 노트테이킹은 중요한 기술이지만 초보자의 경우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노트테이킹이 필요한 이유는 연사의 발화가 길어져 기억할 수 있는 한도를 넘기 때문인데, 방식은 달라도 전문 통역사라면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노트테이킹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 통역사들에게 있어, 노트테이킹은 오랜 기간의 연습과 실전을 통해 제2의 천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트테이킹을 처음 배우는 학생의 경우 노트테이킹은 숙달하기 어려우며, 노트테이킹을 배우기 전보다 청취 능력이 저하되는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Gile 2009: 181-182 참조). 무엇보다, 타인이 개발한 방식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동안 노트테이킹에 대한 다양한 이론서와 논문이 발표되어 노트테이킹을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들 내용만으로 충분한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1950년대 발표된 노트테이킹 기법에 대한 초기 문헌(Herbert 1952; Rozan 1956)으로부터 최근에 출간된 저서(Jones 1998/2002; Gillies 2017; 이상빈 2020)에 이르기까지 노트테이킹에 대한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나와 있다. 또한 노트테이킹 전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의 노트테이킹에 대한 논점 제시(노트테이킹 언어: Szabó 2006; Lee 2017, 작업기억 활용: Dong, Liu and Cai 2018; Brock and G. Choi 2021)로 참고할 거리도 많아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와 학생 노트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에도 불구하고 노트테이킹은 “상당 부분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기(very much a question of personal taste)”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Jones 1998/2002: 49; 최정화 1998: 81 참고).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타인의 경험이 축적된 노트테이킹 원리와 원칙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개념과의 외로운 고군분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테이킹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질적으로 보이는 개념도 그 내용이 축적될수록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설명이 노트테이킹 방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하기까지 최대한 오래 그리고 최대한 많은 지원(스캐폴딩, scaffolding¹⁾)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Vygotsky 1978).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노트테이킹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지만 노트테이킹 훈련에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노트테이킹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은 이미 텍스트 분석에 널

1) 교수자가 학습자의 향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학습상의 도움을 제공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념으로 Vygotsky 등 사회구성주의 학자들이 주창한 개념이다.

리 활용되고 있으며 의미를 기반으로 한 언어학 이론으로, 메시지 즉 의미를 중시하는 통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체계기능언어학의 텍스트 분석 도구는 통역 텍스트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통점을 출발점으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 중에서도 경험적 의미(experiential meaning)의 문법자원을 활용하여 동사의 노트테이킹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동사의 노트테이킹을 제안하는 이유는 동사가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이지만, 실제 노트테이킹 시 놓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장 참조). 본고의 구성은, 앞서 설명한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동사의 노트테이킹 방법(영한방향)을 제안한 후에 그 내용을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후 본 테스트와 관련한 학생의 경험을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2. 체계기능언어학

체계기능언어학은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번역학에서도 텍스트 분석 모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Munday 2012: 36), 세계 우수 번역학자를 필두로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Baker 1992; Hatim and Mason 1997; House 1977/1997; Trosborg 2002 등). 그런데, 번역학과 달리 통역 분야에는 체계기능언어학의 활용도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Steiner 2019: 743). 하지만 번역(translation)이라는 명칭이 번역과 통역을 포괄하는 통칭으로 사용될 만큼 두 분야에 공통점이 존재하며(Shuttleworth and Moira Cowie 1997: vi, 181), 또한 최근에 이처럼 “소홀했던 통역 분야(the neglected field of interpreting)”(Snell-Hornby 1991: 19)에 체계기능언어학을 접목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 통역 분야로의 적용 및 협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Tebble 2008; Li and Zhang 2020; Chen et al. 2022; Kim et al. 2023). 하지만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노트테이킹 연구는 대단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 이론 중 대표적인 분류 중 하나인 프로세스의 분류, 즉 동사의 분류가 순차통역의 중

요한 기술인 노트테이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자세한 내용은 4장과 5장 참조).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는 체계기능언어학은 언어를 문법, 의미, 맥락이라는 계층화(stratified)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법에 대한 개념도 맥락 안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적용 가능한 문법(applicable grammar)’, 즉 실용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의미는 명제적 의미(ideational meaning), 대인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그리고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이중 명제적 의미는 다시 경험적 의미(experiential meaning)와 논리적 의미(logical meaning)로 구분된다.²⁾ 경험적 의미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리키며, 대인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와 더불어 분석의 기본 단위인 절(clause)을 구성한다(Butt et al. 2000: 33). 논리적 의미는 이러한 경험적 의미를 이루는 절과 절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대표적으로 인과관계, 양보, 조건 등이 있다. 대인적 의미는 감정이나 판단, 대우법(honorifics)과 같이 대인 간 상호작용 시 주고받는 의미를 가리키며, 텍스트적 의미는 텍스트의 결속성(cohesion)을 통한 자연스러운 흐름 및 가독성에 기여한다. 이들 의미 중에서 본고에서는 경험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험적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로는 참여자(participant)와 프로세스(process) 그리고 환경(circumstance) 등이 있다. 예를 들어, ‘Mom cooked rice in the kitchen every day’라는 절이 있다면, ‘Mom’은 ‘누가’에 해당하며 ‘cooked’는 ‘했나’를, ‘rice’는 ‘무엇을’, ‘in the kitchen’은 ‘어디에서’, 그리고 ‘every day’는 ‘언제’에 해당한다. 여기서 참여자는 ‘Mom’과 ‘rice’ 즉 ‘누가’와 ‘무엇을’에 해당하고, 프로세스는 ‘cooked’, 환경은 ‘in the kitchen(장소)’과 ‘every day(시간)’이다. 프로세스는 전통 문법에서 동사로 불리는 범주에 속하는데,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동사 대신에 언어의 기능에 초점을 둔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³⁾ 다만, 본고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설명에 필요

2)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의미(meaning)를 기능에 초점을 맞춰 대기능(metafunction)이라 부른다.

3) ‘프로세스’를 ‘과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문헌도 있는데(이관규 외 2021), 아직 널리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세스라는 용어 대신에 동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해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본고에서는 프로세스(동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세스는 의미와 분석의 기본 단위인 절(clause)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이다(Butt et al. 2000: 33). 상기 예처럼, 참여자는 둘 이상도 될 수 있으나(예. ‘She loved her children all her life’에서 ‘she’와 ‘her children’, ‘They give us their love’에서 ‘They’와 ‘us’와 ‘their love’) 때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After (he) finishing breakfast, he set out to work’에서 첫 번째 절의 주어 ‘he’ 생략). 환경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지만(예. ‘He liked riding bicycles ϕ’), 프로세스는 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때에 따라 단독으로 절을 구성하기도 하므로(예. ‘Go!’) 의미를 노트하는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시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프로세스는 절의 필수 요소지만 절의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한두 단어로 이루어져 청취 시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노트테이킹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영한 통역의 경우 프로세스 다음에 다른 구성요소가 절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잦아(예. ‘Mom cooked rice in the kitchen every day’에서 ‘cooked’ 뒤의 내용)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세스를 노트테이킹할 때는, 최대한 단순화하면 유리한데,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제시하는 의미 위주의 사고는 이러한 단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세한 내용은 5장 참조).

3. 체계기능언어학의 경험적 의미와 노트테이킹: 무엇을 노트할 것인가

상기에서 제시한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설명하는 경험적 의미는 노트테이킹과 유사한 점이 있다. 존스(Jones 1998/2002: 22-23)에서는 노트테이킹 할 주요 내용(main idea)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한다(who does what and when)’, ‘누가 언제 무엇을 말한다(who says what and when)’, 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생각

한다(who thinks what and when)’로 보고, 길고 복잡한 문장도 이 세 가지 요소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길리스(Gillies 2017: 38)에서도 이러한 단순화된 형태를 ‘누가 무엇을 한다’ 즉, 주어-동사-목적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노트테이킹을 위해 주요 메시지만을 간추려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문법을 “느슨하게 적용한 접근방식(relaxed approach)”이다. 예를 들어 “I think this greater cultural intermingling should be a cause for rejoicing rather than for concern”이라는 문장을 “intermingling… should be… a cause for rejoicing”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Gillies 2017: 39). 이와 같이 단순화한 형태에서도 동사는 제외되지 않고 핵심 요소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기 문장에서는 동사가 조동사와 be 동사로 처리되어 노트 시 그 자체로 짧게 노트하거나 노트테이킹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에 제시된 ‘They give us their love’라는 문장에서 ‘give’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통역 현장에서는 다양한 동사를 만나므로 동사 노트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동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체계기능 언어학의 분류 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노트테이킹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 동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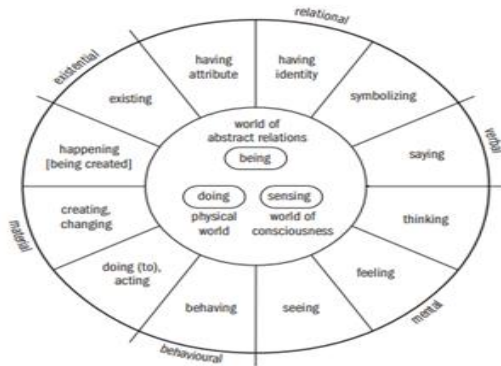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트테이킹 시에는 단어를 노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노트하는데, 이는 동사의 노트테이킹도 마찬가지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동사를 기능, 즉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동일한 동사라도 그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다. 예를 들어, ‘The cat lies on the floor.’에 나오는 단어 ‘lies’와 ‘How deserted lies the city, once so full of people!’⁴⁾에 등장하는 ‘lies’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누워있다’라는 뜻이고 후자는 ‘be’ 동사에 가까워서 ‘How deserted is the city…’로 바꾸면 바로 이해가 된다. 마찬가지로, ‘He

4)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 나오는 첫 문장으로,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버전이다.

used to go to the shop’의 ‘go(가다)’와 ‘They go, “Okay”’에 나오는 ‘go(말하다)’는 의미가 다르며, ‘She struck the thief’의 ‘struck(쳤다)’와 ‘A brilliant idea struck me’에서 ‘struck(떠올랐다)’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같은 동사가 사용되더라도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다르게 노트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의미를 기준으로 동사(프로세스)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⁵⁾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질적 프로세스(material process), 정신적 프로세스(mental process), 관계적 프로세스(relational process), 행동적 프로세스(behavioural process), 구두적 프로세스(verbal process) 그리고 존재적 프로세스(existential process)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중 첫 세 유형은 비중이 높은 주요 프로세스에 해당하며, 나머지 세 유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프로세스이다.

<그림 1> 프로세스 유형(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172)



물질적 프로세스는 ‘hit’, ‘go’와 같이, 동사 즉 순수한 우리말로 움직씨(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⁶⁾)라는 말 그대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동사로, 어떤 행동이 있음으로 인해 그에 따르는 변화(doing)나 원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상태의 변화(happening)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he

5) 본고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프로세스 유형은 영어 기준이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530>

stirred coffee’에서 ‘stirred(doing)’와 ‘sugar melted’에서 ‘melted’(happening)가 물질적 프로세스에 해당한다. 정신적 프로세스는 의식 있는 존재(conscious being)가 사물을 지각하거나(‘see’, ‘hear’), 인지하거나(‘forget’, ‘consider’), 감정을 표현하는(‘like’, ‘hate’) 것에 관여한다. 관계적 프로세스는 참여자의 속성(attributive)(‘Mary is strong’)이나 식별(identifying)(‘Mary is our CEO’)을 보여 준다. 행동적 프로세스는 물질적 프로세스와 정신적 프로세스의 특성을 모두 지닌 프로세스로, 의식 있는 존재의 물리적 및 심리적 행동(‘laugh’, ‘smile’, ‘worry’, ‘dream’)을 나타내는 프로세스이다(Eggins 2004: 233). 구두적 프로세스는 ‘say’를 비롯하여 말로 하는 여러 다양한 프로세스(‘explain’, ‘promise’, ‘convince’)를 의미하며, 존재적 프로세스는 주로 ‘there was once a beautiful princess’와 같이 ‘...이 있다’,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프로세스별 예문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예문(Martin et al. 2020: 4장. 필자의 요약 및 번역)

프로세스	설명	예문
물질적 프로세스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공간의 이동이나 물리적 구성의 변화이다. 추상적 변화도 포함한다	She drove down the coast; The lake froze; He melted the butter; The wind destroyed the gazebo; Their arguments destroyed her theory.
정신적 프로세스	인격체가 인지, 원함, 감정과 같이 의식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에 관여한 경우, 의인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The man knew too much; She liked her job; It surprised him to see her so happy; My car doesn't like hills.
관계적 프로세스	전통적 문법의 be 동사에 해당. 두 가지 주요 유형은 속성과 식별.	She is energetic; Red stands for danger; She has lots of energy; She owns her property.
구두적 프로세스	saying(말하기)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말하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단어(tell, state, inform 등)뿐 아니라 show, indicate과 같은 기호학적인 구두적 프로세스도 포함한다.	He told me a strange story; the paper says there will be another election; The sign indicates Gates 50-55 are to the right.

<p>행동적 프로세스</p>	<p>물질적 프로세스와 정신적 및 구두적 프로세스의 중간 형태. 정신적 행동과 구두적 행동 등 인간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형태.</p>	<p>I am looking at John; I am listening to John working; The cat's sniffing the flower; I am tasting the wine.</p>
<p>존재적 프로세스</p>	<p>관계적 프로세스와 유사해보이지만, 관계적 프로세스와 달리 하나의 참여자에 국한된다.</p>	<p>There will be a real bunfight; All around them was silence; Along this waterway toiled a string of wolfish dogs.</p>

이러한 여섯 가지 프로세스 유형 중 본고에서는 프로세스 유형 바퀴에서 주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관계적 프로세스와 정신적 프로세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위치한 구두적 프로세스를 다루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유형이 프로세스 유형 바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세 프로세스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물질적 프로세스나 행동적 프로세스의 경우 대단히 다양한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범주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존재적 프로세스는 상급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범주화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프로세스(동사)는 연설문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설문은 통역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유형 중 하나다. <표 2>는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빌 게이츠의 연설문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세 연설문 모두 3천 단어가 넘으며, 문장 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났으나(최대 40% 이상) 사용된 동사 수는 세 연설문 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10% 이하). 동사 종류를 보면, 관계적 동사(41.2%), 물질적 동사(27.1%), 정신적 동사(16.8%), 구두적 동사(11.9%) 순으로 많았고, 행동적 동사(1.8%)와 존재적 동사(1.4%)는 미미한 정도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관계적 동사와 정신적 동사, 구두적 동사는 전체 연설문의 69.9%를 차지하여 프로세스 바퀴에 비해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연설문에 관계적 동사(41.2%)가 다른 동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동사 유형이 프로세스 유형 바퀴에서 제시하는 비중보다 연설문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연설문을 주 교재로 사용하는 통역 교실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세 가지 연설문에 사용된 동사 종류

	단어	문장	동사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구두적	행동적	존재적
라이스	3030	180	101	27	28	29	14	1	2
오바마	3904	244	92	24	7	49	8	3	1
게이츠	3008	162	91	26	12	39	12	1	1
평균 ⁷⁾	3314	195.3	94.7	25.7	15.7	39	11.3	1.7	1.3
백분율	N/A	N/A	100	27.1	16.8	41.2	11.9	1.8	1.4

이들 연설문은 문어체가 강한 격식체의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계적 동사는 문어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G. Choi 2013). 문법적 은유는 어휘적 은유(예, ‘시간은 금이다’)에서 파생한 개념으로 문법상으로는 상이하지만 기본 내용은 동일한 구어체와 문어체 문장을 떠올려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구어체로 표현될 때보다 문법적 은유가 포함된 문어체로 표현될 때 어휘 밀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라는 구어체가 강한 문장보다 문어체로 된 ‘Hard work leads to success’가 전체 문장 대비 어휘 밀도가 높다. 어휘 밀도는 전체 단어 수 대비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주요 품사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분한다(Ure 1971: 445; Halliday and Hasan 1985). 이 문어체 문장에 사용된 동사군 ‘leads to’는 의미가 be 동사에 준하는 관계적 동사 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동사는 사용되는 빈도에서만 아니라, 어휘 밀도가 높고 문어체가 강한 격식체의 연설문을 다룰 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동사 유형을 고려한 노트테이킹 활용방법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동사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기호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 특히 기호를 제안하는 이유는 기호를 사용할 경우 단어가 아닌 의미 위주의 노트에 유리하며 글자를 적는 것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Jones 1998/2002: 49). 즉, 기호는 노트하는데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청취에 집중할 수 있어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Gile 2009: Chapter 7 참조). (물론 노력이 적게 드는 약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seem’, ‘become’, ‘remain’ 등의 관계적 동사는 화살표로 처

7) 평균과 백분율은 소수 첫 자리에서 반올림함.

리할 수 있으며, ‘like’, ‘love’, ‘adore’ 등의 정신적 동사는 하트(heart)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ay’, ‘speak’, ‘announce’ 등의 구두적 동사는 입술 모양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만 보고도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출발어 청취 시 충분히 이해가 된 내용이라면 간단한 장치로도 상기가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최정화 1998: 78 참조). 동사 유형별 노트테이킹에 대한 내용은 아래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동사와 노트테이킹

5.1 관계적 동사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적 동사는 참여자의 속성(attributive)이나 식별(identifying)을 나타내는데, ‘Mary is wise’와 ‘Mary is our CEO’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be 동사이다. 아래의 <표 3>을 보면 여러 다양한 형태의 관계적 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트테이킹 목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관계적 동사는 be 동사나 그에 준하는 동사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please remain calm’에서 ‘remain’은 be 동사에 해당하며(‘please be calm’), ‘red represents passion’에서 represents도 be 동사에 준하는 의미로 단순화할 수 있다(‘red is passion’).⁸⁾ 또한 ‘comprise’, ‘feature’, ‘constitute’, ‘stand for’ 등의 단어나 단어 군도 마찬가지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적 동사는 문어체가 강한 연설문 등의 텍스트에서 많이 볼 수 있다(G. Choi 2013b 참조). 이들 단어는 노트테이킹할 때 철자가 길어 단어를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단어 음절이 길면 회상률이 하락하여 노트테이킹에 불리하다(Baddeley 1990; Gathercole and Baddeley 1993). 대부분의 관계적 동사는 등호(=), 화살표(→), 빼기(-), 쌍점(:) 등의 기호로 처리 가능하다.

8)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동사는 be 동사와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순화가 노트테이킹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표 3〉 관계적 동사의 예(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238, 수정됨. 필자의 번역)

	속성	식별
중립	be, feel	be
단계: 시간	become, remain	become, remain
	turn (into), grow (into); get, go, fall, run; stay (as); keep	turn into, grow into
단계: 외관	seem, appear, qualify as, turn out, end up (as)	seem (+superlative)
단계: 감각, 지각	look, sound, smell, feel, taste (like)	
측정	weigh, cost, measure	
특질 (quality)	seem, appear; matter, count, apply, figure, suffice, abound, differ, vary, dominate, do; hurt, ache; stink, smell; reek, drip, ooze; suck, stink	
역할		play, act as, function as, serve as
징후		mean, indicate, suggest, imply, show, betoken, mark, reflect
등식		equal, add up to, make
종류/부분		comprise, feature, include
중요성		represent, constitute, form
범례		exemplify, illustrate
상징		express, signify, realize, spell, stand for, mean
배정: 중립	make; ensure, guarantee, prove, confirm	make
배정: 상술		elect, choose (as), dub; name, christen, term; spell, pronounce
배정: 투사	think, consider; wish, want; prove	think, consider; prove; call, declare

5.2 정신적 동사

정신적 동사는 인격체가 지각(perceptive), 인지(cognitive), 원함(desiderative), 감정(emotive)과 같이 의식을 포함하는 동사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Martin et al. 2010: 103). 정신적 동사가 사용된 예를 보면, ‘I noticed that the cup was full’(지각), ‘She knows his name’(인지), ‘I wish you a merry Christmas’(원함), ‘I like my school’(감정)과 같다. 보다 다양한 예시는 아래

<표 4>를 참고할 수 있다. 정신적 동사를 노트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4가지 하위 분류의 첫 글자, 즉 *perceptive*의 p, *cognitive*의 c, *desiderative*의 d, *emotive*의 e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모든 정신적 동사에 대해 작은따옴표(') 또는 하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따옴표는 인지를 나타내고('think' 류 동사) 하트는 감정('love' 등)을 나타내는데, 둘 다 정신적 동사를 대표하는 기호로 사용이 가능해 보인다.⁹⁾ 더불어,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수학기호 더하기(+)와 빼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특히 감정 동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like'는 하트(♡)만 사용해도 좋고, 하트와 더하기(♡+)도 가능하며 'adore'의 경우 하트와 이중 더하기(♡++)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islike는 하트와 빼기(♡-)를 'loathe'는 하트와 이중 빼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강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밑줄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연사의 발연 속도가 빠르거나 노트할 내용이 많아 누락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트만 노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 정신적 동사의 예(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210, 필자의 번역)

	'like' 유형	'please' 유형
지각	perceive, sense; see, notice, glimpse; hear, overhear; feel; taste; smell	(assail)
인지	think, believe, suppose, expect, consider, know; understand, realize, appreciate; imagine, dream, pretend; guess, reckon, conjecture, hypothesize; wonder, doubt; remember, recall, forget; fear (think fearfully)	strike, occur to, convince; remind, escape; puzzle, intrigue, surprise
원함	want, wish, would like, desire, hope (for), long for, yearn for; intend, plan; decide, resolve, determine; agree, comply, refuse	(tempt)

9)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거나 6장에 나오는 학생 대상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노트를 살펴보면 작은 따옴표보다는 하트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감정	like, fancy, love, adore, dislike, hate, detest, despise, loath, abhor; rejoice, exult, grieve, mourn, bemoan, bewail, regret, deplore; fear, dread; enjoy, relish, marvel	allure, attract, please, displease, disgust, offend, repel, revolt; gladden, delight, gratify, sadden, depress, pain; alarm, startle, frighten, scare, horrify, shock, comfort, reassure, encourage; amuse, entertain, divert, interest, fascinate, bore, weary, worry
----	--	--

5.3 구두적 동사

관계적 동사와 정신적 동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사한 동사 그룹별로 묶으면 같은 그룹에 속하는 동사는 단어나 기호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두적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say’와 ‘speak’, ‘utter’를 모두 따로 노트할 필요 없이 가장 짧은 단어인 say를 노트하거나 기호로 처리할 경우 인용부호(“)나 쌍점(:), 줄표(-), 또는 입술 모양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구두적 동사도 정신적 동사에 준하여 표기 가능하다. 예를 들어, ‘criticize’, ‘blame’, ‘praise’, ‘flatter’와 같은 동사도 각각 say-(부정적인 말), say--(지나치게 부정적인 말), say+(긍정적인 말), say++(지나치게 긍정적인 말) 등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처리할 경우 큰따옴표와 빼기(“-), 큰따옴표와 더하기(“+)나 입술 모양과 빼기(-), 입술 모양과 더하기(+)로 표기 가능하다. 구두적 동사의 예는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구두적 동사의 예(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255, 필자의 번역)

형태		동사의 예
행동	목표	praise, insult, abuse, slander, flatter, blame, criticize, chime
	언급	speak, talk
기호	중립적 인용	say, tell; go, be like
	명령 외	tell [sb that], report, announce, notify, explain, argue, convince (that), persuade (sb that), promise (that)
		ask [sb whether], question, enquire [whether]
명령	tell [sb to do], ask [sb to do], order, command, require, promise, threaten, persuade [sb to do], convince [sb to do], entreat, implore, beg	

상기에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동사에 활용할 수 있는 노트테이킹 방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세 가지 동사 유형의 노트테이킹 방법 요약

	관계적 동사	정신적 동사	구두적 동사
의미	be 동사	지각, 인지, 원함, 감정	언급
단어 예	represent, signify, remain	notice, know, wish, like	say, tell, announce
노트 방안	등식(=), 화살표(→), 줄표(--), 쌍점(:)	p(perceptive), c(cognitive), d(desiderative), e(emotive)	짧은 단어로 표시(say)
		작은따옴표('), 하트(♡)	큰따옴표("), 줄표(-), 쌍점(:), 입술 모양
		더하기(+), 빼기(-)로 강도 조절	더하기(+), 빼기(-)로 강도 조절

6. 학생 대상 테스트

6.1 데이터와 테스트 방법

체계기능언어학의 동사 분류에 기반한 노트테이킹 방법을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 적용해보았다. 통번역대학원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기 3가지 동사 유형이 포함된 문장을 가지고 노트테이킹과 통역을 실시했다. 테스트 방법은 먼저, 관계적 동사, 정신적 동사, 구두적 동사 유형이 담긴 문장을 두 세트 준비해서 먼저 첫 세트를 들려주고 노트테이킹 후 통역하도록 하였다. 이후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동사 유형과 노트테이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후 두 번째 세트를 들려주고 노트테이킹 후 통역하도록 하였다. 두 세트 각각 1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트마다 동일 항목에 동일한 동사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첫 세트 세 번째 항목에 관계적 동사 ‘remain’이 있으면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항목에도 ‘remain’이 포함되어 있다. 단어 수는 첫 세트가 193개의 단어, 두 번째 세트는 25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두 번째 세트가 약 30% 더 많다. 이는 첫 세트 테스트 실시 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단순히 길이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복잡해지면서 기억력 부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내용과 관련한 다섯 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노트와 통역 녹음 파일을 취합하여 노트와 통역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6.2 분석 결과 및 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결과, 첫 번째 세트에 비해 두 번째 세트에서 기호의 사용이 늘었다. 특히 세 가지 유형의 동사 중 관계적 동사에서 기호로 바꾼 예가 가장 많았다. 정신적 동사와 구두적 동사의 경우는 대체로 첫 번째 세트에서는 글자로 노트된 경우가 많았으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글자로 된 노트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통역 품질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세트가 첫 번째 세트보다 오류 발생률이 낮아 통역 품질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테스트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의 학생이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동사의 노트 테이킹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6.2.1 기호 수의 증가와 글자 수의 감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의 학생 노트에서 기호의 사용이 늘었다는 점이다. <표 7>을 보면 첫 번째 세트에서는 기호 사용 건수가 총 12건에 불과했으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6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기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두 명의 학생(S7, S9)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의 경우 기호 사용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2와 S8의 경우 첫 세트에서는 기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기호를 10건 이상 사용하고 있다. 세 가지 동사 하위 분류를 보면, 관계적 동사가 두 번째 세트에서 26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두 세트 간 차이가 가장 큰 하위 유형은 정신적 동사로 7배 넘는 차이를 보인다(첫 세트에서 3건 사용, 두 번째 세트에서는 23건 사용).

〈표 7〉 기호를 노트한 건수

	S1	S2	S3	S4	S5	S6	S7	S8	S9	전체
관계적	2→4	0→3	1→5	3→5	1→4	0→3	0→0	0→4	0→0	7→26
정신적	1→3	0→3	0→4	0→4	0→2	2→6	0→0	0→3	0→0	3→23
구두적	1→1	0→5	0→0	0→3	0→0	1→1	0→0	0→3	0→0	2→13
합계	4→8	0→11	1→5	3→12	1→6	3→10	0→0	0→10	0→0	12→62

이와 대조적으로 글자를 노트한 건수는 첫 번째 세트에 비해 두 번째 세트에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글자를 노트한 건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는 총 74건이었으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4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글자 수의 감소는 전체 학생에게서 골고루 나타났는데, 한 학생(S5)만 제외한 모든 학생에서 나타났다. 하위 동사 분류 별로는 정신적 동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첫 번째 세트에서 36건, 두 번째 세트에서 14건)(〈표 8〉), 그다음으로 관계적 동사와 구두적 동사 순서로 글자 수가 줄었다. 이에 반해 기호 사용 건수(〈표 7〉)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호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정신적 동사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로 볼 때 기호 건수의 증가와 글자 수의 감소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표 8〉 글자를 노트한 건수

	S1	S2	S3	S4	S5	S6	S7	S8	S9	전체
관계적	2→0	1→0	1→1	1→0	0→0	1→0	0→0	1→0	3→3	10→4
정신적	5→1	4→0	5→3	4→3	1→0	0→0	5→1	7→4	5→2	36→14
구두적	2→1	3→1	5→4	4→2	2→6	1→0	2→0	3→3	6→5	28→22
합계	9→2	8→1	11→8	9→5	3→6	2→0	7→1	11→7	14→10	74→40

6.2.2 기호로 노트한 예

아래의 <그림 2>는, 첫 세트에서는 글자를 노트했으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기호로 노트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관계적 동사의 경우 ‘It is your responsibility as educated people to remain optimistic no matter what’이라는 문장을 노트한 경우인데, 아래쪽에 끝부분이 흐려 있기는 하지만 ‘remain’이 글자로 적혀 있다.¹⁰⁾ 그에 반해, 두 번째 세트에서는 ‘The U.S.-ROK Alliance

10) 이 단어는 ‘remain’의 약어 ‘rem’으로 노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확대하여 자

remains vital and vibrant, and our commitment to the Alliance remains ironclad'라는 문장에서 'remain'이 두 번 등장하는데 모두 수학기호 등호(=)를 사용하고 있다. mental에서는 'I hate to interrupt, but I think your car is getting towed'에서 'hate'를 글자 그대로 노트했으나 두 번째 세트에서는 'I like to work in teams but I don't necessarily hate working individually'에서 'hate' 뿐 아니라 'like'도 하트(♡)로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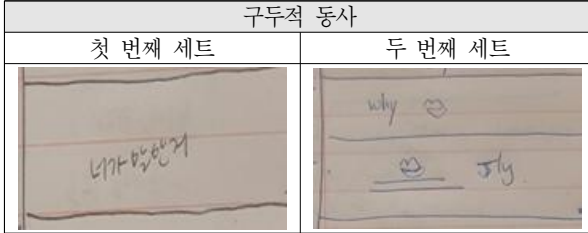
<그림 2> 관계적 동사와 정신적 동사의 노트 예

관계적 동사		정신적 동사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그림 3>을 보면 구두적 동사에서는, 첫 번째 세트에서 'It's not what you say, it's the way that you say it'이라는 문장에서 '너가 말한 거'라고 쓰고 있는데 비해, 두 번째 세트에서는 'Why won't you say what you were going to say'에서 입술 모양으로 노트를 하고 있다. 나아가 'We are extremely pleased to announce that our July sales have far exceeded expectations'에서 'are extremely pleased to announce'를 입술 모양에 밑줄을 두 개 그어주고 있어 기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히 살펴보면 끝부분에 글자를 날려서 쓴 모양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모든 철자를 노트한 경우로 판단했다.

〈그림 3〉 구두적 동사의 노트 예



6.2.3 약어의 사용과 동사의 생략

기호와 글자 수 증감 이외에 눈에 띄는 것은, 약어의 사용과 동사의 생략이었다. 약어를 살펴보면, 약어를 사용한 학생 수가 적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한 학생(S1)을 제외하고는 약어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표 9>를 보면, 첫 번째 세트에서 총 7건의 약어 노트가 있었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14건으로 두 배 증가했으나 기호와 글자, 특히 기호의 사용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약어의 사용을 독려하는 통역 분야 전반의 흐름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단어 철자 전체를 적는 것이 아닌 약어의 사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9〉 약어의 노트 건수

	S1	S2	S3	S4	S5	S6	S7	S8	S9	전체
관계적	0→1	0→0	0→0	0→0	0→0	0→0	0→0	2→0	0→0	2→1
정신적	1→5	1→0	0→2	0→0	0→0	0→0	0→0	0→0	0→1	2→8
구두적	2→3	0→0	1→2	0→0	0→0	0→0	0→0	0→0	0→0	3→5
합계	3→9	1→0	1→4	0→0	0→0	0→0	0→0	2→0	0→1	7→14

<표 10>은 동사를 노트하지 않고 생략한 경우를 보여준다. 약어 노트 건수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생략한 건수도 줄었는데, 첫 번째 세트에서 64건이었던 것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52건으로 0.8%로 줄었다(표 10). 하위 동사 유형별로 보면, 관계적 동사와 구두적 동사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관계적 동사에서 감소 폭이 컸다(25→15). 이러한 감소는 관계적 동사의 기호 증가분(7→26) 글자수의 감소(10→4)뿐 아니라 동사의 생략이 기여한 점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

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정신적 동사는 증감 없이 동일한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1→21), 학생별로 살펴보면, 증가 2명, 동일한 수의 유지 1명, 감소 6명 등 다양한 상황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보다는 감소가 우세하다.

〈표 10〉 동사를 노트하지 않고 생략한 경우

	S1	S2	S3	S4	S5	S6	S7	S8	S9	전체
관계적	1→0	4→2	3→1	1→0	4→1	4→3	5→5	1→1	2→2	25→15
정신적	0→0	1→3	2→1	3→1	7→4	4→2	2→6	0→0	2→4	21→21
구두적	0→1	3→2	0→0	0→1	4→0	5→4	3→5	3→2	0→1	18→16
합계	1→1	8→7	5→2	4→2	15→5	13→9	10→16	4→3	4→7	64→52

텍스트 결과를 정리해보면 기호를 사용한 건수는 5배 이상 늘었고(5.2배), 글자를 사용한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으며(0.5배), 생략도 줄었다(0.8배)(<표 11> 참조). 약어를 사용한 경우는 2배 늘었지만 전체 숫자가 적어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글자를 사용한 건수와 생략이 줄고, 기호를 사용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호 감소 건수를 동사 하위 분류 별로 살펴보면, 관계적 동사의 경우는 주로 동사를 생략하던(Φ) 것 (첫 번째 세트 25건, 두 번째 세트 15건)이 두 번째 세트에서 기호로 바뀐 것으로 보이며(첫 번째 세트에서 7건, 두 번째 세트에서 26건), 뒤이어 글자 수가 줄어든 영향(첫 번째 세트에서 10건, 두 번째 세트에서 4건)도 기호 건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신적 동사와 구두적 동사는 글자 수가 줄어서 기호로 바뀐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정신적 동사의 경우 동사의 생략(Φ)이 변함이 없어(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모두 21건으로 동일), 기호가 대폭 늘어난 원인이 글자 수가 1/3수준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분석해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동사의 생략이나 글자 수가 늘면서 기호가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보건대, 첫 번째 세트에 비해 두 번째 세트에서 학생들은 동사의 생략을 줄임으로써 동사를 놓칠 가능성을 줄이고, 철자를 노트하는 데 드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은 노력은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청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내용 파악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기호, 글자, 약어 노트 정리

	기호	글자	생략
관계적 동사	7→26	10→4	25→15
정신적 동사	3→23	36→14	21→21
구두적 동사	2→13	28→22	18→16
합계	12→62 (약 5배)	74→40 (약 0.5배)	64→52 (약 0.8배)

6.2.4 통역 품질

그렇다면, 이러한 기호의 증가가 통역 품질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역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트에 사용된 전체 단어 수에서 의미의 오류가 발생한 단어 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다(전체 단어 수 - 오류가 있는 단어 수). 이 경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단어는 각 1점, 그리고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는 0.5점씩 감점했다. <표 12>를 보면, 오류가 발생한 단어의 전체 합계가 첫 세트에서는 총 230.5단어였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214단어로 줄어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 오류가 16.5 단어 적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첫 세트에서는 평균 84.5점, 두 번째 세트에서는 88점으로 두 번째 세트에서 3.5점 늘었다. 각 학생의 통역을 보면 S5와 S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트에서 점수가 올라갔다. 참고로, S5의 경우는 두 번째 세트에서 기호가 늘어났으나 단어 철자를 노트한 건수 역시 늘어나 노력의 절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Gile 2009: 7장 참고). S7은 동사의 생략이 많고 1, 2 세트 모두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장이 길어진 두 번째 세트에서 내용 파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세트에서의 3.5점 상승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상기 ‘6.2 데이터와 테스트 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세트에 비해 두 번째 세트에서 단어 수가 30% 늘어남으로 인해, (특히 격식체가 강한) 연설문의 문장 구조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인지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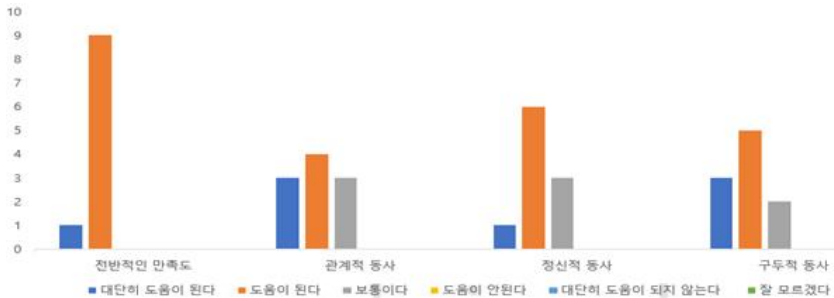
〈표 12〉 통역 품질의 상승

	S1	S2	S3	S4	S5	S6	S7	S8	S9	전체
세트1	-10	-16	-17	-24	-12	-35.5	-38.5	-47	-69.5	-230.5
(%)	(94.8)	(91.7)	(91.2)	(87.6)	(93.8)	(81.6)	(80.1)	(75.6)	(64)	(84.5)
세트2	-11	-10	-12.5	-19	-26	-20.5	-60	-58	-57	-214
(%)	(95.7)	(96.1)	(95.1)	(92.5)	(89.8)	(91.7)	(76.4)	(77.2)	(77.6)	(88)

6.3 설문조사

상기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동사 유형별 노트테이킹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했다. 각 동사 하위 유형별 질문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도움이 되거나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일부만이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그림 4>를 보면, 동사 유형별 노트테이킹 방식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10%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밝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 동사 유형에 대한 만족도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를 합하면 70~80%로 조사되었는데, 관계적 동사와 정신적 동사가 70%이고, 구두적 동사가 8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30%의 학생이 관계적 동사와 구두적 동사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정신적 동사는 10%로 조사되어, 구두적 동사, 관계적 동사, 정신적 동사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동사 유형별 기호의 노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특히 구두적 동사와 관계적 동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동사 유형별 노트테이킹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아래는 본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다.

-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 같다. 동사에 집착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 동사 분류가 청취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만 모든 동사에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 ‘말했다’, ‘언급했다’ 등은 입술로 표현해야겠다.
- 이전에는 단어마다 해당 표현을 적었는데, 이제는 ‘착하다’, ‘좋다’, ‘기쁘다’, ‘친절하다’, ‘사랑스럽다’를 모두 하트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
- 엄청 유용한 것 같다. be 동사로 변화될 수 있는 동사를 의식하고 화살표로 연결하게 되었다

7.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영한 순차통역 수업 시 노트테이킹 도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취력 저하를 줄이고 노트테이킹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체계기능언어학의 프로세스 분류를 활용한 노트테이킹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따른 소규모 테스트를 실시했다. 문장에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동사의 노트에 중점을 두어 동사를 범주화하고 기호로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연사의 연설 속도가 빠를 때나 구문이 복잡한 경우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트테이킹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이고 이렇게 줄인 노력을 동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격식체가 강한 연설문에서 동사의 앞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하는 be 동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관계적 동사에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노트테이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실시한 학생 대상 테스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어를 노트하는 건수가 줄고 기호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통역 품질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구두적 동사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에 나와 있는 노트테이킹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이외에 추가

적인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찾는다. 특히, 문장의 모든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동사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모든 동사를 기호로 노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제시한 세 가지 동사 유형 중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극히 일부만 기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동사를 기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어의 사용도 가능하다.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동사 분류를 활용하여 유사한 의미를 담은 동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기호로 간단히 표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노트태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동사만이 아니라 형용사나 명사 등 다양한 품사에도 기본적인 의미가 유사하다면 같은 그룹으로 묶어 적용 가능하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내용이 문장 단위로 국한되어 있어 실제 통역 상황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문단이나 텍스트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맥락이나 주제지식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요소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배경의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테스트 집단을 늘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동사 이외의 문장 성분, 예를 들어 주어의 노트태킹도 연구한다면 학생들의 선택지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관규, 김서경, 노하늘, 성수진, 신희성, 유상미, 이현주, 정려란, 정지현, 정혜현 (2021) 『체계기능언어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상빈 (2020) 『국제회의 통역사를 위한 노트태킹 핵심기술』, 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최정화 (1998) 『통역번역입문』, 서울: 신론사.
- Baddeley, Alan D. (1990)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Working Memory: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of Neuropsychology', in

- Giuseppe Vallar and Tim Shallice (eds)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s of Short-term Memory*, Cambridge: Cambridge UP, 54-73.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rock, Chris and Gyung Hee Choi (2021) ‘Effective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Training: An Initial Analysis of Language Choice Using Working Memory’,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2(2): 243-267.
- Butt, David, Rhondda Fahey, Susan Feez, Sue Spinks and Colin Yallop (2000)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second edition, Sydney: National Centre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Macquarie University.
- Chen, Shukun, Winfred Wenhui Xuan and Hailing Yu (2022) ‘Apply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n Translation Studies: A Research Synthesis’, *Babel* 68(4): 517-545.
- Choi, Gyung Hee (2013a) ‘Translating Grammatical Metaphor in a Scientific Text: Implications of Understanding ‘Favourite Clause Type’ for Translator Training’, *T&I Review* 3: 7-39.
- Choi, Gyung Hee (2013b) ‘Teaching Community Interpreting Students Consecutive Interpreting: A Text-based Analysis of the Interplay of Genre and Grammar in a Good-will Speech Text’, *Foru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1(2): 43-74.
- Choi, Jungwha (1998) *Tongyeokbeonyeokimmun 통역번역입문* [An introduction to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eoul: Shinnonsa.
- Dehn, Milton J. (2008) *Working Memory and Academic Learn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and Sons.
- Dong, Yanping, Yuhua Liu and Rending Cai (2018) ‘How Does Consecutive Interpreting Training Influence Working Memory: A Longitudinal Study of Potential Links between the Two’, *Frontiers in Psychology* 9: 1-12.
- Eggins, Suzan (200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econ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 Gathercole, Susan E. and Alan D. Baddeley (1993) *Working Memory and Language*, East Sussex, UK: Lawrence Erlbaum.
- Gile, Daniel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ised edi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lies, Andrew (2017)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A Short Course*,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Halliday, Michael A. K. and Christian M. I. M. Matth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Arnold.
- Halliday, Michael A. K. and Ruqaiya Hasan (1985)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Geelong: Deakin University.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erbert, Jean (1952) *Manuel de l'interprète: Comment on devient interprète de conférences*, Geneva: Georg.
- House, Juliane (1997/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Niemeyer.
- Jones, Roderick (1998/2002)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Kim, Mira, James R. Martin, Gi-Hyun Shin and Gyung Hee Choi (2023) *Korean Grammar. A Systemic Function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P.
- Lee, Juyeon (2017)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The Case of Korean and Englis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9(3): 65-84.
- Li, Xin and Ranran Zhang (2021) 'Interpreting as Institutional Gatekeeping.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Interpreted Questions at the Chinese Foreign Minister's Press Conferences', in Binhua Wang and Jeremy Munday (eds) *Advances in Discourse Analysi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Linking Linguistic Approaches with Socio-cultural*

- Interpret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6-127.
- Martin, James R., Christian M. I. M. Matthiessen and Claire Painter (2010) *Deploying Functional Grammar*,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ozan, Jean-François (1956) *La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Geneva: Georg.
-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Snell-Hornby, Mary (1991) 'Translation Studies – Art, Science or Utopia?', in Kitty M. van Leuven-Zwart and Ton Naaijken (eds)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Proceedings of the First James S Holmes Symposium on Translation Studies*, 13-23.
- Steiner, Erich (2019) 'Theorizing and Modelling Translation', in Geoff Thompson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P, 739-766.
- Szabó, Csaba (2006)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A Topic Revisited', *Interpreting* 8(2): 129-147.
- Tebble, Helen A. (2008) 'Using SFL to Understand and Practise Dialogue Interpreting', in Canzhong Wu, Christian M. I. M. Matthiessen and Maria Herke (eds) *Proceedings of IFSC 35; Voices Around the World*, The 35th ISFC Organizing Committee, 146-151.
- Trosborg, Anna (2002) 'Discourse Analysis as Part of Translator Training', in Christina Schäffner (ed.) *The Role of Discourse Analysis for Translation and in Translator Training*, Clevedon/Buffalo/Toronto/Sydney: Multilingual Matters, 9-52.
- Ure, Jean (1971) 'Lexical Density and Register Differentiation', in George E. Perren and John L. M. Trim (eds) *Applications of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P, 443-452.
- Vygotsky, Lev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ss.: Harvard UP.

<인터넷 자료>

- Gates, Bill (2007) 'Remarks of Bill Gates, Harvard Commencement 2007'. Available at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07/06/remarks-of-bill-gates-harvard-commencement-2007/>.
- Obama, Barack (2012) 'Transcript of Speech by President Barack Obama'. Available at <https://barnard.edu/headlines/transcript-speech-president-barack-obama>.
- Rice, Condoleezza (2012) 'SMU Commencement speech by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vailable at <https://www.smu.edu/News/2012/commencement-Condoleezza-Rice-speech>.

[Abstract]

**Notetaking Verbs Drawing o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s
Process Types: Focusing on an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Classroom**

Gyung Hee Choi
(Pyeongtaek University)

Notetaking is a useful skill in consecutive interpreting that assists an interpreter with their memory. However, the useful tool may pose a major obstacle for interpreter trainees.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available that provides general knowledge and various examples of what and how to note (Lee 2017; Gillies 2017). Yet, the research does not seem to provide just enough resources to support beginners in notetaking; and some researchers even suggest that employing the resources is mostly personal preference (J. Choi 1998: 91; Jones 1998/2002). This gap in the perceived number of resources and the seemingly free but let-alone policy from students' perspectives may posit a need for additional exploration on the subject. Of myriads of items related to practical notetaking resources, this study concentrates on verbs. Verbs are a key constituent in a clause that can be challenging to grasp in speech because it normally comprises only one or two words and is thus quickly followed by the remainder of the clause.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which, as in interpreting, prioritizes meaning in analyzing texts. The outcome of the study includes suggestions of notetaking symbols for some types of verbs and the affirmation of the researcher's suggestions as confirmed through usage on the students' test.

Keywords: notetaking verb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er trainees, Process Types

주제어: 동사의 노트테이킹, 체계기능언어학, 영한순차통역, 통역 교육생, 프로세스 유형

최경희(<https://orcid.org/0000-0001-8639-8301>)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조교수

gchoi@ptu.ac.kr

관심 분야: 통번역교육, 체계기능언어학, 텍스트분석, 작업기억, 기독통번역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